

화학공학 학술대회 10월 26-27일 KAIST 개최

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화학공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국화학공학회 2007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가 10월 26-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다.

정밀화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가을 학술대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특히 개발된 기술들의 산업화를 위한 공정기술을 소개하는 주제별 심포지엄과 학회회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5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에서는 정밀화학산업 중 염료, 안료, 의약,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천연 화합물로부터 나노소재 개발까지 한국의 정밀화학 개발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연사로는 동부하이텍, 오염산업, 옥성화학, 테크노세미켐, 제일약품, 아모레퍼시픽의 정밀화학산업 권위자들이 초청됐으며 학회 산하 이사 한귀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BK21 화공사업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또 대덕특구 연구소 및 기업체들의 연구개발 동향 심포지엄에서는 대덕단지에 연구소가 있는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SK에너지, 디엔에프, 금호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의 기술개발동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개발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공정기술 심포지엄 및 공정기술원 설립안 공청회에서는 공정기술산업의 현주소와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현황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산업자원부 오영호 차관을 비롯한 3명의 초청강연이 있고 후반부는 우성일 교수의 공정 기술원설립의 당위성과 추진경과 발표에 이은 공정기술원 설립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으로는 인적오류분석기술과 안전성 향상 심포지엄, 연료전지와 이동현상 심포지엄, 약물전달기술 심포지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심포지엄이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이 아니라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일반인 7만원, 학생 3만5000원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와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산업화를 위한 공정기술을 포함한 화학공학 관련 첨단기술 논문이 포스터 발표로 개최돼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kich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0/12>